

선진 물류시스템의 현황과 물류시스템의 전개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이 기간중에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산업기기 전시회인 CeMAT '94도 참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유럽의 물류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물류관리협회의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편 물류협회의 전화번호와 FAX번호가 변경됐다. 전화: 391-4835, 379-9095, 379-3165로, FAX: 379-9095

### 골판지상자 일괄생산체제 갖춰

한국수출포장, 고품질 저가제품 개발

골판지상자 생산업체인 한국수출포장(대표 허용삼)이 지난달 10일부터 안성공장의 시운전에 돌입하는 등 일괄생산체제를 완비, 대대적인 시장공략에 나선다.

이 회사는 안성 제2공단에 2백억원을 투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중인 안성공장의 골판지상자 인쇄가공공정

시운전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또한 4월초까지 콜게이터 등 골판지 생산시설 건설을 완료,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총 1백20억원이 들어가는 기계시설중 인쇄기 4대는 1천만달러를 투자, 프랑스로부터 도입하고 콜게이터기 1대는 4백만달러를 들여 일본으로부터 도입해 연 8천만의 골판지상자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제품 개발에도 힘써 내용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고품질의 저가제품을 개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그동안 약품투입이 많아 단가가 비쌌던 특수 골심지의 단점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태흥환경, 소각공장 준공가동

대구·경북 폐기물처리 수월

구미공단에 위치한 특정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주)태흥환경(대표 홍부홍)이 지난달 10일 소각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 한양화학, ISO 9002 인증 획득

PE · PVC · 크롤-알칼리 전제품

한양화학(주)(대표 박원배)이 영국에 등록된 노르웨이 선급협회인 DNV-Q4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한양화학은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인증심사를 받은 결과 본사의 원부자재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시스템과 여천과 울산 제1공장의 PE, PVC수지, 크롤-알칼리 전제품에 대해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획득은 품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크롤-알칼리 제품 및 본사가 동시에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한양화학은 이번 ISO 9002를 획득함에 따라 표준화 규정절차를 수립하게 되었고, 품질향상을 비롯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회사의 노하우로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양화학이 획득한 ISO 9002는 설계부문이 제외된 전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럽 및 구미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ISO시리즈의 인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에 유리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의



▲ 한양화학 박원배 사장이 DNV-Q4 한국지사장으로부터 ISO 9002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할인혜택을 받는 등 제품판매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흥환경이 구미공단 3단지 내 5천평 부지에 40여억원을 투입, 이번에 준공한 소각공장은 하루 30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데 폐유, 폐유기 용제류 등 액체폐기물을 소각보조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합성수지 등 고체폐기물을 소각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 업체는 하루처리 능력이 72톤인 소각기 2호기도 착공에 들어갔다.

### 삼남석유 TPA공장 대폭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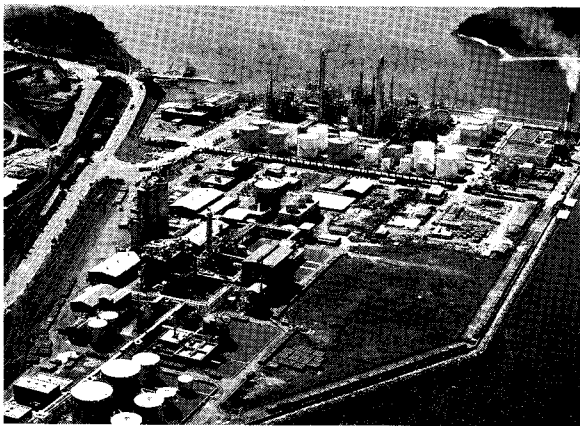
연산 20만톤으로 늘려 삼양사에 공급

삼양그룹 계열 삼남석유화학(대표 임성택)은 지난달 2일 여천 석유화학공단에서 폴리에스테르 원료인 TPA(고순도테레프탈레이트)증설공사 기공식을 갖고 연산 20만톤 규모의 TPA증설에 착수했다.

삼남석유화학이 모두 1천4백억원을 들여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연산 25만톤)을 45만톤으로 늘리는 이 공사는 95년말 완공될 예정이며 생산되는 TPA는 삼양사의 폴리

(표4)각 사별 TPA증설 추진현황(93년 현재, 단위:톤)

구 분	현 능력	증 설	증설 후 능력
삼성석유화학	600,000	250,000	850,000
삼남석유화학	250,000	200,000	450,000
고려석유화학	250,000	150,000	400,000
선경인더스트리	240,000	—	240,000
대한유화	—	250,000	250,000
계	1,340,000	850,000	2,190,000



▲ 여천 공단내에 위치한 삼남석유화학 전경

에스테르 생산라인에 원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삼양사, 호남정유, 일본 미쓰비시화학이 각각 40%, 20%, 40%의 지분으로 합작 설립한 삼남석유화학은 TPA의 원료인 PX(파라크실렌)를 호남정유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아 TPA를 생산하고 있으며, 새로 증설되는 공장은 에너지절감형 공정을 채택,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 문예 콘테스트 참여대상 확대

삼성종합화학, 플라스틱가공 고객사까지

삼성종합화학(대표 황선두)이 사내 임직원 가족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예콘테스트를 전국 플라스틱 가공업체인 고객사 임직원까지 참여대상을 확대, 현재 각 부문별로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시·공트·수기·사진·서예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응모작품을 접수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은 응모된 작품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정, 오는 5월 19일 창립 제6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작 1편, 우수작 1편, 가작 2편 등 총 24편을 선정, 상금과 함께 시상하게 될 이번 삼성문예콘테스트의 작품응모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작품은 삼성종합화학홍보팀으로 직접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빌딩 12층 삼성종합화학 홍보팀(전화:772-6691-3)

### 환경대응 그린마케팅 활발

리필·저공해 포장재 확산

저공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 환경보존을 내세운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 그린마케팅 붐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오염을 최소화시키도록 저공해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용기도 리필(교체용) 제품으로 바꾸거나 CPP(무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 등을 사용해 토양에서의 분해도를 높인 포장재 용기로 교체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쇼퍼백을 개발, 사용하고 있으며 진로유통은 헌 신문지 수거함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그린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미원의 경우 대한주부클럽과 공동으로 전제품의 포장지 및 포장용기를 수거해 재생 처리한데 이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를 응용, 상품화하고 있다.

엘지카드는 환경보호를 겨냥, 발행한 그린카드 회원을 25만명이나 확보해 1억2천만원의 환경보호기금을 조성했다.

태평양과 럭키, 한국화장품 등 화장품업계도 그린제품은 물론 저공해 원료 및 포장재 사용 리필상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기존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을 위해 내용물만 따로 파는 리필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 탈황·탈질시스템 개발연구

한중, 환경설비시장 진출

한국중공업(대표 이수강)이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환경설비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 환경설비 시장이 앞으로 5년간 2조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등 유망산업으로 부상되자 소각설비 분야에 참여키로 했다.

한국중공업은 이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과 황화물(SOx)과 질화물(NOx) 제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 타쿠마사와 도시쓰레기 소각플랜트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간 도입할 소각기술은 소각플랜트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것으로 폐열을 이용하는 소형 발전시스템도 갖춘 첨단 소각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이번 기술도입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1백톤 이상의 대형 소각로를 완전 국산화, 국내외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회사는 앞으로 3년간 모두 3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한국기계연구원과 '플라즈마를 이용한 탈황·탈질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중공업이 이번에 공동개발에 나선 플라즈마시스템은 건식시스템으로 화력발전소와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가스에서 황화물과 질화물을 완전히 제거, 2차 오염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 환경오염 방지기구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현재 정부의 G7 프로젝트과제의 하나로 올 10월에 개발, 완료될 광폭 전 기집진장치에 연결할 경우 분진 및 대기가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 물류학교 개설 교육 실시

한진그룹, 3일씩 4회 계획

한진그룹(회장 조중훈)은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종합 물류연구소에서 94년 물류학교를 개강한다.

국내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물류종사자 상호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이번 물류학교는 지난 달 2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9월, 11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각각 3일씩 강좌를 개설한다.

### 식품사 신규사업 참여 활발

제일제당·세원·삼양 등 경영다각화

식품업체가 신규사업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삼성그룹 분리를 계기로 경영다각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음료수 및 다류제조 가공판매업, 음식점 및 유통업체에 신규 참여할 계획이다.

미원그룹에서 분리된 미원식품은 상호를 (주)세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운수관련 서서비스업, 창고·보관업,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원식품은 옥수수 가공식품분야가 불황을 겪고 있고 사업전망 역시 불투명한 점을 감안, 옥수수 가공식품의 매출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미원도 올 하반기부터 제약사업에 진출키로 한데 이어 최근 식품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중이다.

대한제당은 사료, 설탕사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사업, 음료제조, 방송사업 등을 벌이기로 했는데 외식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해 최근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업체인 시즐러사와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롯데삼강은 도시락, 광천음료, 냉동식품 제조판매업, 식자재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밖에 삼양식품도 레저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등 식품업체들의 영역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 유리병 판매량 급락

지난해 경기부진·저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3년도 유리병의 판매량은 707,422톤으로 전년대비 7.1%가 하락해 경기에 민감함을 보여줬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 자동계명 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판매현황을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음료용병이 45.4%라는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 청량음료병이 38.7%, 양주잡병 17.7% 등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돼

전체 음료용 병의 판매량이 23.4%나 감소했다.

그러나 약병(50.7%), 기타병(48.8%), 수출병(35.0%) 등 회수가 잘돼 재활용이 쉬운 분야의 매출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업계는 지난해 이같이 제병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경기가 침체된데다 날씨마저 저온현상을 보여 음료수를 비롯한 주류의 소비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병업계는 올해 매출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주류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신제품의 개발이 예상되고 있어 소폭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리병 생산 및 판매현황은 [표5]와 같다.

### 내소날푸라스틱 금형사업 강화

자본금 2억원으로 법인설립

내소날푸라스틱(대표 송창원)이 금형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억원의 자본금으로 내소날금형을 법인으로 등록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설립된 이 회사는 플라스틱사출용 금형을 만들어 모회사인 내소날푸라스틱에 납품하는 한편 판매에도 나선다.

건평 2백평 규모의 대림동 공장에는 32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금형제조와 금형제작에 필요한 설계, 수리 등의 부대업무도 하게 된다.

### 환경개선 성과 거둬

력키, 폐기물 및 폐수 등 발생 감소

력키(대표 성재갑)가 환경투자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개선 결실을 거두고 있다.

94환경관리 모범업체 최다사업장 보유업체로 지정된 력키는 올해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작년대비 40%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사업장별로 환경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 이의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력키는 환경보전체제를 일원화한 '전사업환경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활동을 전개, 지난해 폐기물 절감 및 수질, 대기오염방지의 구체적 성과를 보였다.

공장증설에도 불구하고 여산, 온산 등 6개 공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모두 3만7천톤으로 전년대비 15%나 감소했다.

수질부문에선 지난해 각종 공정개선 및 재활용으로 지난해 폐수발생량이 600만톤으로 전년대비 10% 줄었다.

대기부문에선 여산공장의 경우 법정기준치의 40% 이내 관리를 목표로 각종 설비를 신설, 제거효율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한편 력키는 그린라운드(GR) 시대의 환경규제 강화 및 기업의환경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환경

[표5] '93년도 유리병 생산 및 판매 현황(자동제병 11사)

종류	구분	'93년도 생산량			'93년도 판매량			전년동기비 판매증감
		TON	천본	백만원	TON	천본	백만원	
음주 병	맥주병	91,670	193,429	22,659	91,544	193,224	22,509	-2.7
	소주병	100,684	344,059	30,710	106,387	342,720	34,979	-2.8
	양장주병	45,778	109,858	16,133	44,623	106,077	185,774	-17.7
료 소	계	238,132	647,346	69,502	242,554	642,021	73,262	-5.9
용	청량음료	30,572	121,800	8,509	31,257	106,330	8,718	-38.7
	건강, 영양음료	98,473	536,419	25,437	93,482	559,001	32,198	-45.4
	중 계	367,177	1,305,465	103,448	367,293	1,307,352	114,178	-23.4
식품, 조미료 병		74,636	252,567	31,802	77,552	260,653	35,524	+10.9
화 장 품 병		13,868	194,333	32,262	11,508	181,817	37,094	+6.6
약 병		172,388	1,590,955	48,151	188,142	1,745,662	52,325	+50.7
농 약 병		20,467	58,318	5,371	17,541	50,940	4,534	-5.9
기 타 병		30,794	314,921	13,162	21,499	218,273	6,307	+48.8
수 출 병		8,134	104,108	4,164	5,206	83,161	3,290	+35.0
합 계		687,464	3,820,667	238,360	668,741	3,847,858	253,252	-7.4
				외주수입	18,701	90,851	5,391	+103
				합 계	707,422	3,938,709	259,143	-7.1

\* 자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오염 발생을 제로화 하자'는 슬로건 아래 개선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 잉크사업 분리 전문화 모색

대한페인트잉크, 도료사업 비해 위축돼

도료·잉크 전문생산업체인 대한페인트잉크(대표 한영재)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잉크사업 부문을 분리, 지난해 12월 (주)대협서 상호를 변경, 새로이 출범한 계열사 대한잉크(대표 한동엽)로 양도한다.

대한페인트잉크는 지난 2월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잉크사업부문의 분리·양도를 승인받고 이달 1일자로 잉크사업 부문의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대한잉크(주)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대한잉크(구 대협)는 잉크의 생산만을 전담해 왔으며 판매영업은 이제까지 대한페인트잉크에서 맡아왔다.

대한페인트잉크의 잉크사업부문의 93년 매출은 도료부문을 포함한 전체매출 1천3백60억원의 13.2%인 1백79억원이었으나 경영수지는 적자 2백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잉크사업으로 45년 처음 출범한 대한페인트잉크가 사업부문을 분리, 대한잉크에서 잉크의 생산·판매를 전담토록 한 것은 도료와 잉크사업 부문을 각 사별로 전문화·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회사경영체제가 상대적으로 주력사업인도료부문에 치우쳐 잉크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잉크사업 부문의 분리로 대한페인트 잉크의 올 매출액은 1천3백90억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에 제지수출 적극나서

업계, 고품질로 장기 공급

제지업계가 동경사무소 개설, 판지수출 성사 등 대일 수출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시장의 공급과잉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수출확대의 일환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 및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시장을 공략할만큼 국내 제지업계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한펄프(대표 최병민)는 지난 2월 50톤의 판지를 일본에 수출한데 이어 앞으로 매월 200톤씩 공급하기로 하는 장

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펄프의 수출판지는 소니사의 제품케이스로 사용된다. 대한펄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일본인쇄, 요판인쇄 등 일본 유수업체의 품질시험을 통과한바 있다.

대한펄프는 판지의 일본수출이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동경사무소를 개설하고 과장급 1명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계성제지도 일본에서 학업과 함께 정보 및 연락사무 역할을 수행해온 최홍 전무가 최근 귀국함에 따라 동경사무소를 정식으로 개설키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비교적 대규모의 동경사무소를 운영중에 있는 한솔제지도 인력을 더욱 보강할 방침이다.

한솔제지는 과장급 2명, 대리 1명, 현직인 1명, 고문3명 등 타사에 비해 많은 인력을 가동중인데 향후 수출확대와 시장동향 파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인력을 더 보강키로 했다.

### 종합상사 물류사업 본격진출

시장조사·조직개편 서둘러

종합상사들이 국내의 물류사업 참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는 수출마진의 축소세에 따라 줄어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주요 진출분야는 국내 유통업 참여, 물류단지 조성, 해외 화물운송 알선사업 진출, 국내 의류판매사업 확대 등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유통업 진출을 위해 올초 유통사업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4개팀을 두었다.

이 회사는 수출입 전문회사라는 장점을 살리되 기본적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에 기여하는 국내 유통근대화를 이룬다는 방침아래 품목별 시장조사 작업을 펴고 있다.

이에따라 편의점과 백화점사업 등은 일단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유통인라이프의 복합화를 통해 해외 유명체인점의 국내 상권확대를 막고 소비자에 기여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우선 철학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효성물산은 편의점과 양편점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아래 사업개발부에서 품목 및 타당성 검토작업을 펴고 있으며 창고와 유통기지가 복합화된 물류단지 조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효성은 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올초 조양래 그룹회장

이 갖고 있던 물산주식 30만주를 처분했다.

(주)대우는 해외 화물운송 알선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최근 조직개편에서 사업본부와 부서의 중간단계인 물류사업담당을 신설하고 그 아래 3개팀을 두었다.

대우는 이 사업이 기반을 잡는대로 국내 유통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선경은 스마트 학생복지와 카스피 캐주얼웨어의 내수판매를 위해 92년 설치한 의류 내수본부가 올해 사업기반을 굳힐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캐주얼웨어의 새 브랜드를 도입, 내수 의류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 기초유분값 큰폭 상승 전망

일본 생산시설 중단 영향

화재발생으로 인한 일본의 대규모 프로필렌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이달중 실시되는 업계의 대대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나프타분해공장(NCC) 작업중단까지 겹쳐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의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와사키에 있는 프로필렌시설인 일본도넨사의 연산 46만3천톤 규모 FCC(유동상 접촉분해방식) 공장이 화재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도넨사는 FCC공장 사고로 기초유분 조달에 차질을 빚자 최근 한양화학으로부터 프로필렌 2,300톤을 FOB(본선인도가격) 기준으로 톤당 295달러에 긴급 수입해 왔다. 이는 운임비 등을 감안할때 올 1/4분기중 국내 공급 가격에 비해 30달러이상 비싼 것이다.

도넨사는 프로필렌의 안정적인 확보를 겨냥, 대림산업과 카고 1대분인 1,150톤의 추가 구매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양화학을 비롯 현대석유화학, 유공, 대한유화 등이 NCC의 정기보수에 대비, 계열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틸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초유분 확보를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양화학은 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계속되는 정기보수에 대비, 대림산업으로부터 에틸렌 25,000톤을 구매할 계획이다.

현대석유화학도 정기보수기간(15~5월15일)중 계열공장 조업을위해 에틸렌 10,000톤 상당을 대림산업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국내외 요인들로 인해 기초유분 수급상황이 갑

자기 어려워지면서 바닥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던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이 급속도로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은 톤당 400달러선에서 92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 300달러 선으로까지 폭락, 기초유분업계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꼽혀 왔었다.

대림산업은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2/4분기부터는 에틸렌을 현재보다 20달러 비싼 톤당 315달러에 국내 거래선에 공급할 방침이다.

### 계성제지 재산보전 결정

자금난 심화로 법정관리

국내 6대 인쇄용지업체의 하나로 계성제지 계열사인 남한제지가 지난달 17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계성제지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성제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한솔제지가 인쇄용지 시장에 신규 진출하면서 각사들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지난 2년동안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인데다 84, 85년에 잇따라 인수한 남한제지와 풍만제지를 회생시키기 위한 200억원대 투자가 모기업에 부담이 됐고 최근 수개월동안 부도설 등 악성 루머로 자금난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한제지의 경우 계성제지에서 인수한 후 대폭적인 시설투자과 계성의 판매망을 이용, 판매문제도 해결해 경영이 안정적이었으나 모회사인 계성제지에 500억원의 지급보증에 따른 부담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모기업인 계성제지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남한제지의 법정관리신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성제지의 금융부채는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 450억원, 제2금융권 200억원 포함 750억원, 남한제지의 금융부채는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 350억원과 제2금융권 포함 520억원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계성측은 법정관리절차와 함께 회사 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계성제지와 풍만제지를 통합하는 한편 계성제지 오산공장부지 4만평을 매각, 600억원대의 재원을 확보해 채무변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유가증권 등 기타 담보도 있으므로 회사 회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로 복사지 등 신제품을 속속 개발한데 이어 수출에도 나서고 있으며, 올해부터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자제되면서 인쇄용지 가격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보고 있다.

계성측은 계성제지의 주채권자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이어 남한제지의 주채권자인 서울신탁은행과도 지속적으로 접촉,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계성제지그룹은 계성, 남한, 풍만, 성부실업, (주)계성 등 5개 계열사가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800억원선이었고 이밖에 동양고속과 동해펄프에도 출자하고 있다.

### 제지업계 ISO인증 획득 경쟁

추진팀 구성 준비작업 박차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제지업체들이 ISO 9002 인증획득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생산제품의 품질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ISO시리즈의 인증이 시급하다고 보고 각 사별로 추진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인쇄용지업체인 남한제지는 올 하반기중 신탄진공장을 대상으로 ISO 9002 인증을 얻는다는 목표로 기술, 생산, 영업, 기획분야의 종사자 30명으로 추진팀을 구성했다.

한솔제지는 신문용지를 만드는 전주공장과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장항공장의 인증을 따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한국제지는 온산 인쇄용지공장의 인증획득을 위해 한국품질인증센터에 심사를 의뢰했다.

계성제지와 풍만제지는 내년중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등 앞으로 제지업체들의 인증획득 노력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북경에 EPS단열재 공장 설립 계획

미원, 연산 2천톤 규모

미원유화(대표 이덕림)가 중국 북경에 연산 2,000톤 규모의 EPS(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공장을 설립한다.

미원유화는 지난달 16일 이덕림사장이 중국을 방문, 중국 북경건축재료집단지공사 산하 건축재료 생산업체인 아신평중건재공사와 합작으로 방홍망료유한공사를 북경시 방산구에 설립키로 하고 손규춘 총경리와 합작투자 계

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130만달러, 총투자액 200만달러를 투입하는데 출자비율은 양측이 50:50이다.

이번 합작조건으로 아신평중건재공사는 미원유화측에 제품기술을 인정하여 납입자본금의 24%에 해당하는 15만달러의 기술이전료를 지급키로 했다.

미원유화는 중국에서 생산될 건축단열재용 EPS는 전량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키로 했고 96년까지는 이 회사를 자본금 1,000만달러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 삼영잉크 창립 23주년 행사

장기근속자에 공로패 전달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대표이사 김시성)는 지난달 14일 창립2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라비아용 잉크를 비롯한 산업용 도료를 생산해온 삼영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과 함께 업계를 이끌어왔다.

기념식에서 김시성 대표이사는 그동안 노력해준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직원들에게 생활용품을 선물하고 영업부 이선기 부장 등 4명에게 20년 근속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생산부 노승필 과장 등 4명이 15년, 품질관리부 인영호 과장대리 등 6명이 10년 근속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 만안기계 설립 가동

슬리터리 와인더 등 필름가공기기 업체

슬리터 리와인더, 익스트루전라미네이터, 코팅기 등 연포장관련기기를 생산하게 될 만안기계가 설립되어 가동에 들어갔다.

만안기계는 서통엔지니어링에 근무했던 문명수 씨가 대표이사를, 이재규 씨가 기술부장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슬리터 리와인더, 라미네이팅기 등 연포장 관련기기를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해 수요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용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음 자세로 국가와 관련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노력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만안기계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 : (032)5778-8153/4, FAX 578-8155이다.

## 은성정밀인쇄 확장 이전 21억원규모 공장설비 인수

일반인쇄 및 특수인쇄 전문업체인 은성정밀인쇄(주) (대표 김국)가 사무실과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지난달 11일 개업식을 가졌다.

은성인쇄는 지난 76년 동판인쇄기 1대로 가동을 시작하여 인현동, 양평동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 가동을 해왔으나 이번에 상암동의 공장 및 설비를 인수하여 가동함에 따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은성이 인수한 공장은 대지 1,082평에 건평 780평으로 지난해 11월 인수후 다음달부터 건물의 보수 및 전기배선, 상·하수도 배관, 도색 및 기계수리를 2개월에 걸쳐 시행, 지난 2월에 완공했다.

소요금액은 건물 및 기계인수로 18억여만원, 보수 및 이전비 2억6천여만원 등 모두 21억여만원이 소요됐다.

이 공장에는 읍셋 인쇄기를 비롯하여 코팅기, 쉘크기, 도무송기, 포장기 등 현대식 인쇄관련 설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은성의 지난해 매출액은 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개업식에서 김국 사장은 '옆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 보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축사로 나선 신정필(D&C)이사는 '18년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해 온 은성의 앞날에 기대가 크다'며 그동안 디자인과 포장업계가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치하했다.

은성은 이번 공장의 확장 이전과 함께 올해를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원년으로 삼아 성장의 발판을 구축할 계획이다

## 서울수출포장 사옥준공 목재팠리트 생산·영업 강화

팠리트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주)서울수출포장(대표이사 윤희기)이 지난달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서울수출포장은 이전전 경기도 오산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오다 지난달 자체건물을 지어 이전하고 새롭게 사업을 착수했다. 이 회사는 목재팠리트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사무실 이전과 함께 생산량을 늘리고 영업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소 :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7-2  
전화 : 0339)52-8420 FAX : 0339)52-7149

## 태영유압 확장 이전 인천 남동공단으로

사출기 전문메이커인 (주)태영유압기계(대표이사 윤무영)가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 회사는 사출기만을 전문으로 제작해오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공장이 협소해 이번에 확장, 이전하게 된 것이다.

주소 : 경기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10-7 139블록 8로트  
전화 : 032)814-0291 FAX : 815-3210



◀ 은성정밀인쇄(주)가 지난달 개업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 홍우통산, 은성기계로 상호변경

경영압박으로 직원들이 회사 인수

진공포장기를 비롯하여 수축포장기를 제작하던 홍우통산(주)이 상호를 변경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 홍우통산은 경영압박으로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에 나섰다. 새로 바꾼 상호는 은성기계공업이며 대표는 정인덕씨가 맡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홍인동 154 상유빌딩 5층  
전화 : 253-1854

## 현대로봇산업 병합

중공업 물류사업부로

현대로봇산업주식회사가 현대중공업(주)의 로봇자동화 영업부로 병합됐다. 현대중공업은 유관부서 일원화의 일환으로 물류, 포장기기, 로봇 등 자동화사업부인 현대로봇산업을 현대중공업에 병합시켰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지하2층  
전화 : 746-4711 FAX : 746-4720

## 두산개발 주소변경

조정사업부 이전

두산그룹의 두산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문승영)가 조정사업부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도심 및 주택가의 조경을 담당해온 두산의 조정사업부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750-7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전화번호와 팩스는 각각 493-8001, 493-8010으로 변경됐다.

## 제1회 국제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전

그린라운드(GR) 대비한 포장재 선보여

제1회 국제기초소재 및 가공기술전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세동안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렸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초경량 비철기, 복합재료, 자성재료, 금속재료, 고분자 재료, 화학재

료, 세라믹재료 등이 출품돼 기초소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전은 제품 고도화 실현을 통한 첨단 기초산업의 육성, 신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기초소재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신기술 기초소재의 수요촉진을 목적으로 열렸다.

6개국 56개사 250개품목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동인산업(주)(대표이사 박선호)의 초경량 항공기, (주)한국화이바(대표이사 조문수)의 복합재료, 포항종합제철(주)(대표이사 김만제)의 기초소재 및 철강2차제품, 한국중공업(주)(대표이사 이강수)의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소재, 대우중공업(대표 석진철)의 우주항공용 내열고강도 신소재, 포스코홀스(대표 심인보)의 실리콘 웨이퍼, 세원금속(주)(대표이사 안명구)의 플라즈마 코팅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그동안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소재 개발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상공자원부와 각 유관단체의 후원과 협조를 받아 이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94년 이후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신기술 비교분석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첨단과학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과 함께 무한 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신소재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을 일깨워 국산화 및 수입대체 촉진을 통한 내수·수출시장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서울국제플라스틱 가공기기전 열려

6일부터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서

서울국제플라스틱가공기기전(SIPEX)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열린다. 합성수지가공기제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이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홍콩, 태국 등 6개국의 플라스틱성형가공기계업체 등 6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분야에서 특수 플라스틱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 초정밀 사출기와 자동화기기 등이 중점 전시된다.

전시장 규모는 9,050㎡로 원료, 신소재, 플라스틱관련 제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 사업전문 일환 기계사업부 독립

천세자동기 별도 법인설립 가동시작



▲천세자동기가 사업 전문화의 일환으로 분리된 후 지난달 19일 개업식을 가졌다.

천세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충구)는 최근 사업 전문화의 일환으로 포장기 사업부를 별도 법인인 천세자동기 주식회사로 분리했다.

새로 설립된 천세자동기(주)(대표이사 조의수)는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과 공장을 확장하여 지난달 19일 개업식을 가졌다. 이날 개업식에서 조의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천세산업에서 안정된 기반위에 올려놓은 사업을 물려받게돼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며, 천세자동기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좋은 기계를 보급하는데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 86년 설립돼 기술력을 인정받아 온 천세산업은 올해 들어 환경부문과 포장기부문 등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조직개편 및 업무를 분리한 바 있다. 천세산업(주)에서 출자한 천세자동기(주)는 포장기계 전문회사로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천세산업’이란 슬로건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천세자동기는 앞으로 기존의 카토너, 수축포장기 외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제휴사인 일본자동정기(주)와의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포장라인의 자동화와 수출화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 AMPEF 연차총회 서울에서 개최

세계 폴리에스터 업체 40여명 참석

세계폴리에스터제조자협회(AMPEF: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Polyester Film) '93년차총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 폴리에스터필름 제조업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하게 될 서울총회에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인데 폴리에스터필름이 환경지향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심

어주고 타 소재 필름보다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에스터필름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과 폴리에스터필름의 판매량을 늘린다는 취지로 설립된 AMPEF는 유럽폴리에스터필름 제조협회를 모체로 현재는 15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주요 회원사는 미국의 듀폰사, 헉스트사, 유럽의 ICI, 롱플랑, 일본의 데이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SKC, 코오롱, 제일합섬 등이며 본부는 스위스의 쥘리히에 두고있다. AMPEF의 조직은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AMPEF 안에는 9개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총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토의하고 회원사 및 지역별 판매실적, 세계시장 수요예측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사들이 제출한 판매실적, 세계시장 수요예측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회원사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 회원사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밝히지 않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가격 및 물량조정 등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정보는 완전 배제하고 있으며 회원사 및 지역별 협의체에서 제출된 용도, 판매량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치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응, 고객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고 향후 투자 및 생산량,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갖고 있으며 담합을 비롯한 비윤리적 내용에 관한 것은 일체 거론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총회에 앞서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9일 스위스의 쥘리히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KC와 코오롱에서 실무자가 참여했다.



▲ 92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AMPEF총회 광경